



배포일시	2024. 4. 16(화)	담당부서	민간지원팀	전해나라	062)607-5287
			민간지원팀장	이 은 희	062)607-5280
자료구성	총 3쪽	보도일시	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광주사회서비스원, 시민·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 옹호에 앞장

인권실태조사 등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인권옹호 지원사업 추진

인권컨설팅, 상담 연계, 인식 개선 등 ‘자속가능한 인권도시 광주’ 만들기 앞장

-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(원장 김대삼)이 광주지역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 등 시민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권익 옹호에 앞장선다.
-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기관, 이용자들의 인권 옹호를 위한 사업들을 펼쳐 시민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고 광주의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다.
- 지난해 광주지역 사회서비스 종사자 6천여 명을 대상으로 ‘인권 실태 및 욕구조사’를 실시한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인권 침해 경험과 대응 방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, 사회서비스 종사자 대상 인권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관련사업 추진에 나서게 됐다.
- 이 조사에서 사회서비스 돌봄영역 종사자들의 인권 침해 예방 및 대처

방법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, 인권 침해 시 현실적인 지원
책과 공식 대처가 취약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.

- 이에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‘시민들과 서비스 종사자·
이용자의 인권 감수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’을 위한 3단계 사업을 실시
하고 있다.
- 올해 1단계로 인권옹호 자문그룹을 구축하며 연내에 인권 관련 상담,
컨설팅, 교육 등 사업체계를 마련한다.
- 2025년 2단계 사업으로 인권지원사업 확장과 연구과제 설정 등 인권옹호
체계를 내실화할 계획이다.
- 연구 결과에 따른 새로운 인권사업 발굴과 정책 제안, 인권 지원 선도
모델 개발과 보급, 이로 인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2026년까지 달성
하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.
- 광주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인권옹호지원사업의 방향 설정을 위해 광주시
인권옴부즈맨, 지역 변호사그룹, 현장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인권옹호
자문단을 구성 중이다.
- 또한 ‘자가 갑질 테스트’ 등 ‘인권 자가 진단’ 파일을 사회서비스 현장에
메일링하여 인권 상식을 점검하고 일상 속에서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데
노력하고 있다.
- 연내에 변호사 등 전문가와 현장의 인권 상담을 연계하여 직접적인 인권
옹호 지원사업을 펼치며, 종사자 ‘힐링 워크숍’, ‘인권 슬로건’ 공모전,

인권의식 개선 캠페인 등 시민 대상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인권 의식 함양 사업도 병행한다.

- 이와 관련하여 김대삼 광주사회서비스원장은 “광주사회서비스원의 적극적인 인권옹호 지원사업으로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기관, 이용자 등 시민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며, ‘지속 가능한 인권도시 광주’를 만드는데 도움되도록 하겠다”고 의지를 밝혔다.

※ **광주사회서비스원 인권지원사업 단계별 추진 계획**

목표	광주 시민,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		
단계별 목표 및 내용	1단계(2024년)	2단계(2025년)	3단계(2026년)
	[사업방향 설정·시행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지원 범위 설정 ② 인권지원 자문그룹 구축 ③ 수요조사·간담회 실시 ④ 사업 시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상담 컨설팅 교육 홍보 힐링 등 ⑤ 모니터링·성과 평가 	[인권옹호 체계 내실화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지원 범위 확장 ② 연구과제 설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지역 종사자 인권의식 실태조사 ③ 사업 확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상담 컨설팅 교육 홍보 힐링 등 ④ 모니터링·성과 평가 	[인권친화 생태계 구축전파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사업 고도화 ② 연구 결과에 따른 사업 발굴 ③ 선도모델 개발 ④ 민간 전파